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6호

2022.05.27(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6차 지부교섭_제시안 없음]

제시안 없음! 교섭시간 7분!

충주까지 왔는데, 단 7분 교섭

6차 지부교섭이 5월 26일(목) 14시 30분, 충주 KDK에서 열렸다. 사용자들 사전 회의가 길어져서 교섭 시작시간이 5분 늦어졌다. 2차 제시안을 제대로 제출하려고 신중하게 사전회의를 하는가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사측은 제시안을 내지 않았고, 교섭은 단 7분만에 끝났다. 충주까지 1시간 반 이상을 달려온 교섭위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임금 포함해서 일괄안 제출해라

사측은 제시안을 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이번 주에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제출하기 어

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 교섭에서는 지부가 검토할만한 의미있는 제시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지부장은 “다음 교섭에서는 임금인상안 포함해서 일괄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공동실천

이날 교섭위원과 복수노조 간부들은 충주노동지청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실천을 진행했다. 지부는 충주노동지청을 시작으로, 6/2 대전노동청, 6/3 청주노동지청까지 지역 노동청을 순회하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5/26(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선전전 / KDK현장순회



6차 교섭 속기록

소비자물가 인상을 13년만에 최고치!

사 :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여러 가지 경영환경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데 반영을 못하고 있다. 물가가 상당히 오르니까 노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회사나 종업원이나 모두 곤란한 시대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회사도 노조 입장 이해하고 노조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 세계적인 환경 때문이니 이럴 때는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다. 매년 만나서 교섭하는데 매년 무탈하게 끝났다.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잘 교섭해왔으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리라 생각한다. 각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타협되길 희망한다.

노 : 회사는 원자재값 올라가면 생산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런데 노동자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물가가 13년만에 최고치다. 금리도 또 인상됐다. 조합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주 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제시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 제시안 제출하셔라.

사 : 교섭 들어오기 직전까지 사전회의를 많이 했다. 제시안을 제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의미있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시안을 제출하기 어렵다. 다음 차수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겠다. 다음 교섭은 한주 순연해서 진행하자.

노 : 그 때는 중앙교섭에서 나온 걸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의미있는 수준으로 제출할거라고 이해해도 되나?

사 : 노력하겠다.

노 : 오늘은 논의할 것이 없겠다. 그럼 다음 교섭까지는 임금인상안 포함해서 일괄안 제시해 주기 바란다. 금속노조는 6/7일부터 임금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회 보충교섭으로 완전히 내리는 것은 아니다. 지부교섭에서 임금인상안 제출하되, 지회 보충교섭에서 다루는 것은 추후 논의하자. 차기교섭이 6/9(목) 14시 30분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 순서다. 한온시스템이 교섭장소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부가 사전에 현장순회를 하는 관계로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 말고 사업장 강당에서 진행하도록 협의하자.

사 : 실무 통해서 협의하자.